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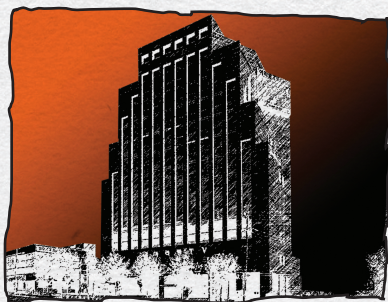


섬뜩한 하루

오후 11시쯤은
업체 엔지니어들과
주조실에서
직업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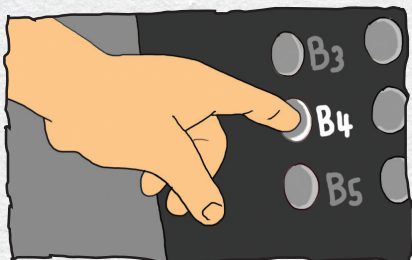


2009년 10월경에는
주조정실 장비 교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정실실 막내로서
선배들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직업을 하던중 비디오 케이블을 다 사
용해서 지하 4층 창고에서 가격으로
시키더군요. '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원지 혼자 버려진다는게
너무이지 않았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을
회로가 가고 있는데,
혼자라 안전
문은 조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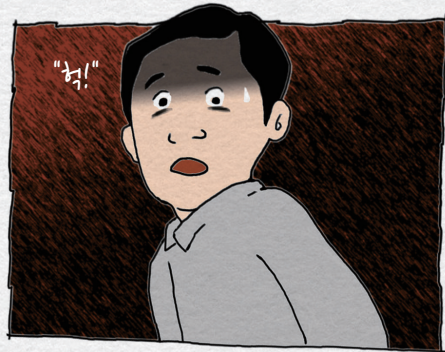
지하 4층에는 정실실 창고
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세트
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는 복도양
에는 피아노도 있죠.
이 시간에 혼자대신하고
생각하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를 들어 정실실용 엘리베이터가
층에 나서 타려고 했는데 누군가 미
끄러지듯이 들어갔고 같이 타려고 재
빨리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이기,
또 남자숙제실에서 잠을 잤는데 가
위가 눌리면서 누군가 계속 쳐다본다
은그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나갔다는
이기, 등등



그래서 층에서 내려서
경비원분들과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인사도 하고... 인숙했으면
'같이 지하 4층 좀 같이가실래요...'하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더듬더듬
 긴장된 마음을 갖고 스
 위치를 찾아서
 불을 키고 창고로 들어가는데 아까 설
 명했던 피아노
 의자 위에 긴장된 여자
 앉아있는 걸 보았다...
 그것도 생생하게...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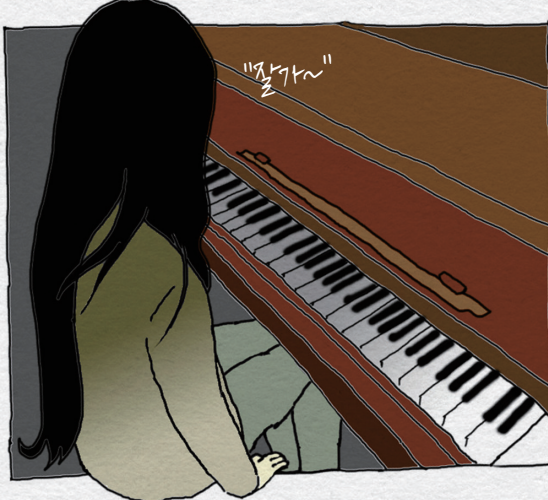


이때까지만 해도
 복도는 전등 스위치를
 눌러야 불이 켜졌습니까.
 그래서... 복도 중간쯤에
 있는 스위치를
 만지려 했습니까..

이미 걸어가는 상인과
 심장 박동수는 급격히 높아졌고
 이상하게 불빛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었음
 앞뒤로 두는 안을 보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창고까지 가서
 바디캠을
 가지고 나는데....



그 여자가... (귀신인지 사귀었는지...
 직도 헛갈리는...)
 계속 피아노는 치고 있고
 앉아있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 상황에서 도망가야
 정상인데..
 그래도 생애가 시켰다고
 캠은 손에서 놓지도 않고 인질 앞만
 보고
 그 여자 뒤를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주조가자, 주조가자...' 계속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로세이든를 타고 올라가... 그제야 안심이 되더군요...
 그 상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네요... 말은 쉽지만 그 상황이...
 엄청 심박한 상황이었습니까. 특히 제가 말을 걸었거나
 도망갔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